

양계장 주변 파리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농장에 쌓여 있는 파리 첨가제

채란농장을 다니다보면 농장 입구에 과거에는 없었던 진풍경을 만날 수 있다. 멀리서 보면 비료나 환경개선제인 것 처럼 20kg으로 비닐 포장된 사료첨가제인 '사이로마진' 이 여름의 파리 방제를 목적으로 쌓여져 있다. 농장에서 만난 양계장주인은 과거에는 사료회사에서 배합을 해서 왔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여름을 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부득이 사료차가 도착했을 때 정량을 맞추어 배합을 해야 하는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부터 예고되었던 상황이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53종의 사료첨가용 항균성 물질을 25종으로 대폭 감축하는 과정에서 국내 양계장 실정과 앞으로 벌어질 현상과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당 사료첨

가제를 삭제한 것이다. 이번에 삭제된 사이로마진은 여름철부터 초가을까지 양계장의 골치거리인 파리발생 억제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성분이 살충제라는 이유로 사료첨가가 금지되기 때문에 양계농가들은 지역의 판매점과 동물약품업체에서 직접 사이로마진을 구매하여 무더운 날씨에 농장에서 직접 첨가를 해야 하는 불편과 파리발생의 증가를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일부 농장에서는 사이로마진을 사용하지 않고 금년 여름을 지나보려는 농가들도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올여름 파리에 의한 농장의 오염과 질병전파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재검토, 유예조치 필요성 부각

사이로마진을 첨가하던 사료회사들도 이미 농가에 통보하고 각 농가에서 구입해서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등 제도개편에 따른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대리점 형식으로 약



계사입구에는 지난 5월 1일부터 사료공장에서 첨가할 수 없는 파리방제용 사료첨가제가 쌓여 있다.

품을 구입해서 배합시 섞어주는 일을 대행하는 업체들도 생겨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친환경적으로 새로운 대체제를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농가들에게 직접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대체물질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한양계협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점과 심각성을 들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검토 및 환원이 이루어지든지, 대체물질이 개발될 때까지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조치를 유예시켜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이 약제를 삭제시키는 과정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못한 채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있으며, 이는 몇 년에 걸쳐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결정이 이루어지는 가까운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지난해 단 2~3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루어 졌고, 의료계로부터 내성의 심각성을 경고 받고 있는 폐니실린과 같은 성분은 그대로 잔존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사이로마진의 사용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인체에 해가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큰 무리없이 사용이 되어져 왔기 때문에 만의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며, 사료공장에서는 첨가가 안되고 농장에서는 구입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일부 농가에서는 사료에 첨가하는 대신 계사 구석에 쌓아놓고 방치해 놓는 농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피해 방지 등 해결책 마련에 관심

파리 1마리의 1회 산란수는 100~150개로 일생동안 5~20회 산란하게 되며, 파리의 일생이 빠르고 짙기 때문에 번식력이 굉장하다고 볼 수 있다. 파리가 많은 농장은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을 장담할 수 없다. 또한 파리가 득실거리는 농장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고 이것이 매스컴을 통해 오염된 농장으로 방영이 될 경우 호황을 누리던 채란업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올해는 파리대책을 세우지 않더라도 잘 넘어가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이 문제에 대해 관심과 해결책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금년 여름에 비가 많이 올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를 접할 수 있다. 계분이 습한 상태로 오래 지속될 경우 곰팡이 등 파리 발생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 금년 여름에는 특히, 농가에서 파리방제용 약제를 계사주변에 자주 뿌려주는 등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에서도 금년여름 파리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양기들로부터의 해결책을 위한 방향 제시와 정부의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취재 | 김동진 홍보팀장)